기본과제 2022-19

충북지역 소상공인 경영변화와 발전과제

정 삼 철 수석연구위원

CRI 2022

CRI 충북연구원
CHUNGBUK RESEARCH INSTITUTE

Contents

제Ⅰ장 연구개요 ····· 1

1. 연구배경과 목적 ····· 1
2. 연구범위 및 방법 ····· 3

제Ⅱ장 전국 및 충북의 소상공인 현황과 경영변화 분석 ····· 5

1. 전국의 소상공인 현황과 경영실태 추이 ····· 5
2. 충북의 소상공인 현황과 경영실태 추이 ····· 9
3. 전국 및 충북의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애로 요인 ····· 14

제Ⅲ장 국내외 소상공인 지원제도와 정책시사점 ····· 22

1. 국내 소상공인 관련 법률 제도 검토 ····· 22
2. 선진국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동향 검토 ····· 31
3. 소상공인 활력 강화를 위한 정책시사점 도출 ····· 35

제Ⅳ장 충북지역 소상공인 활성화 전략 과제 ····· 39

1. 충북지역 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한 전략 ····· 39
2. 충북지역 소상공인 창업 활성화 전략 ····· 40
3. 충북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전략 ····· 42
4. 충북지역 장수 소상공인 발굴 및 육성전략 ····· 44

제Ⅴ장 요약 및 결론 ····· 47

1. 요약 ····· 47
2. 결론 ····· 49

참고문헌 ····· 51

부록 :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 53

표 차례

〈표 Ⅱ-1〉 연도별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수 변화추이(`18~`20) ····· 5
〈표 Ⅱ-2〉 연도별 전국 소상공인 종사자수 변화추이(`18~`20) ····· 6
〈표 Ⅱ-3〉 연도별 전국 소상공인 총매출액 변화추이(`18~`20) ····· 7
〈표 Ⅱ-4〉 연도별 전국 소상공인 총 영업비용 변화추이(`18~`20) ····· 8
〈표 Ⅱ-5〉 연도별 전국 소상공인 총 영업이익 변화추이(`18~`20) ····· 9
〈표 Ⅱ-6〉 연도별 충북지역 소상공인 사업체수 변화추이(`18~`20) ····· 10
〈표 Ⅱ-7〉 연도별 충북지역 소상공인 종사자수 변화추이(`18~`20) ····· 10
〈표 Ⅱ-8〉 연도별 충북지역 소상공인 총매출액 변화추이(`18~`20) ····· 11
〈표 Ⅱ-9〉 연도별 충북지역 소상공인 총 영업비용 변화추이(`18~`20) ····· 12
〈표 Ⅱ-10〉 연도별 충북 소상공인 총 영업이익 변화추이(`18~`20) ····· 13
〈표 Ⅱ-11〉 연도별 전국 소상공인 창업동기 변화추이(`18~`20) ····· 14
〈표 Ⅱ-12〉 연도별 전국 소상공인 창업준비기간 변화추이(`18~`20) ····· 15
〈표 Ⅱ-13〉 연도별 전국 소상공인 총 창업비용 및 본인 부담금액 변화추이(`18~`20) ··· 15
〈표 Ⅱ-14〉 연도별 전국 소상공인 창업 어려움 정도 변화추이(`18~`20) ····· 16
〈표 Ⅱ-15〉 연도별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복수응답) 변화추이(`18~`20) ·· 16
〈표 Ⅱ-16〉 연도별 전국 소상공인 중점추진 희망정책(복수응답) 변화추이(`18~`20) ····· 17
〈표 Ⅱ-17〉 전국 소상공인 재난대응 필요정책(`20년) ····· 17
〈표 Ⅱ-18〉 연도별 충북지역 소상공인 창업동기 변화추이(`18~`20) ····· 18
〈표 Ⅱ-19〉 연도별 충북지역 소상공인 창업준비기간 변화추이(`18~`20) ····· 18
〈표 Ⅱ-20〉 연도별 충북지역 소상공인 총 창업비용 및 본인 부담금액 변화추이(`18~`20) ····· 19
〈표 Ⅱ-21〉 연도별 충북지역 소상공인 창업 어려움 정도 변화추이(`18~`20) ····· 19
〈표 Ⅱ-22〉 연도별 충북지역 소상공인의 사업체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복수응답) 변화추이(`18~`20) ···· 20
〈표 Ⅱ-23〉 연도별 충북지역 소상공인의 중점추진 희망정책(복수응답) 변화추이(`18~`20) ····· 20
〈표 Ⅱ-24〉 충북지역 소상공인 재난대응 필요정책(`20년) ····· 21
〈표 Ⅲ-1〉 소상공인 관련 국가법령 제정 운용현황(`22년 7월 현재) ····· 23
〈표 Ⅲ-2〉 소상공인 관련 광역지자체 조례제정 운용현황(`22년 7월 현재) ····· 24
〈표 Ⅲ-3〉 충북지역 소상공인 관련 자치조례 제정현황(`22년 7월 현재) ····· 25

제Ⅰ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 목적

1) 연구배경

○ 서민들의 일상적 생활경제 버팀목인 지역 소상공인의 역할과 상황인식

- 소상공인은 풀뿌리 지역 서민경제의 기반이자 지역 산업경제생산 활동의 기초적 근간이 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발병으로 인한 세계적 펜데믹 현상의 장기화로 경영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임.
- 충북의 경우, 2020년 현재 소상공인사업체는 9.5만개로 전체사업체(19.1만개)의 49.7%를 차지하고 있음. (전국대비 3.28%를 점유)
- 전국의 경우, 2020년 현재 소상공인사업체는 289.4만개로 전체사업체(603.2만개)의 48.0%를 차지하고 있음.
- 소상공인은 지역 중심의 일자리창출과 경제활동의 중요한 기반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속적인 경영유지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혁신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음.
- 이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코로나19 상황의 조기 극복과 서민경제 기반인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 도모를 위해 소상공인도 미래지향적 경영혁신을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지역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중요성 인식과 경영혁신 요구

- 지역의 일상을 지탱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몰락은 지역 인구감소의 가속화와 함께 도시의 슬럼화와 일상적 지역경제 동력을 상실해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피폐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포스트 코로나의 뉴노멀 시대에 지역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경영환경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혁신적 발전전략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위기 상황에 봉착한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

- 최근 들어 저출산·고령화와 함께 저성장 경제기조의 고착화와 더불어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의 장기화로 사회경제적 구조변화와 경영환경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초래와 지역경제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음.
- 이에 빠르게 변화하는 대내외적 환경변화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은 물론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전략의 모색이 절실한 실정임.

2) 연구목적

○ 코로나 일상(With Corona) 시대 소상공인의 활성화 전략 모색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대내외적 사회경제 환경변화와 뉴노멀 시대에 지속적인 지역경제 성장기반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역 근간의 소상공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위기극복과 활성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 이에 코로나19 상황의 조기 극복과 코로나 일상 시대의 대비를 위한 차원에서 지역기반경제의 주체인 충북지역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지원전략을 모색하여 제시해 보고자 함.

○ 사회·경제적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대응책 강구

- 현실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경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뒤처지지 않고 지역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생존기반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선 혁신적 경영변화가 요구되는 실정임.
- 특히, 영세규모의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시장경쟁력이 취약하고 시대적 환경변화에 둔감하고 대응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이어서 정책적 지원과 대응책의 강구가 필요함.
- 이에 최근 코로나19 이후 나타나고 있는 뉴노멀의 경영환경 여건과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전략 모색이 필요함.

○ 소상공인을 통한 저성장 시대의 극복과 지역 일자리 창출

-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일상적인 버팀목이자 주체로서 저성장 시대 극복과 지역사회 경제 중심의 일자리창출에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핵심기반이라 할 수 있음.
- 현재와 같은 저성장 시대의 경제위기 극복과 지속적 지역경제 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활력 제고와 소상공인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이 뒷받침되도록 해야 함.
- 이에 본연구에서는 충북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활성화와 창업 촉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해 보고자 함.

2.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 시간적 범위 : 자료기준(2019~2020년, 최신자료 활용)

-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9~2020년(통계자료 활용기준)을 기준으로 하고, 가급적 최신 공식통계와 정책자료를 활용하는 것으로 함.

○ 공간적 범위 : 충청북도 및 각 시·군

-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국 및 충청북도 각 시·군 전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최근 제도와 정책환경 변화 등을 포괄함.

○ 내용적 범위

- 전국 및 충북지역 소상공인 현황과 경영실태 분석
  - 전국 및 충북의 소상공인 사업체 변화 추이
  - 전국 및 충북의 소상공인 종사자수 변화 추이
  - 전국 및 충북의 매출액/휴폐업/창업 변화 추이
- 국내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제도와 정책 검토
  - 국내 소상공인 지원 관련 법률제도 및 정책 검토
  - 선진국의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동향 검토
  -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충북지역 소상공인 활성화 발전전략과제 모색
  - 충북지역 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한 전략
  - 충북지역 소상공인 창업 활성화 전략

2) 연구방법

○ 문헌자료 수집 및 법령 검토

- 소상공인 관련 정책자료 및 유관기관·전문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 검토
- 소상공인 관련 법령 제도 및 지원정책 검토

○ 통계자료 수집 및 분석

- 유관기관 및 중앙부처 정책정보 및 소상공인 정책자료 검토
- 통계청, 전국 및 충북의 소상공인 관련 통계정보 자료 수집 분석

제Ⅱ장
전국 및 충북의 소상공인 현황과 경영변화 분석

1. 전국의 소상공인 현황과 경영실태 추이

1)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현황

○ 2020년 현재 전국의 소상공인 사업체수는 총 289.3만개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19년(277.1만개)에 비해 약 12.3만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Ⅱ-1〉 연도별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수 변화추이(`18~`20)

산업별	2018	2019	2020	증감률(%)	
	총 사업체수 (개)	총 사업체수 (개)	총 사업체수 (개)	`18년대비	`19년대비
전산업	2,740,227	2,771,086	2,894,360	5.6	4.4
제조업	355,836	355,992	369,822	3.9	3.9
건설업	112,079	114,607	130,307	16.3	13.7
도매 및 소매업	890,665	891,257	911,339	2.3	2.3
숙박 및 음식점업	649,702	660,126	707,258	8.9	7.1
정보통신업	19,778	21,136	23,319	17.9	10.3
부동산업	111,602	113,551	117,199	5.0	3.2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42,259	45,717	50,914	20.5	11.4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45,164	46,356	52,161	15.5	12.5
교육 서비스업	130,115	132,852	133,343	2.5	0.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5,781	96,724	96,487	0.7	-0.2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287,246	292,768	302,211	5.2	3.2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kosis, kostat.go.kr),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데이터 자료.

-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수는 전체적으로 지난 2018년 대비 5.6%, 2019년 대비로는 4.4%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산업별 중분류를 기준으로 볼 때 지난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산업은 건설업(13.7%), 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12.5%),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1.4%), 정보통신업(10.3%) 등은 1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에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오히려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현재 전국 소상공인 종사자수는 556.6만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 시점인 2019년(644.3만명)에 비해 13.6%가 감소해 87.7만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전국 소상공인 종사자수는 전체적으로 2018년 대비 11.9%, 2019년에 비해서는 13.6%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 산업별 중분류 기분으로 볼 때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도 종사자수는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소세가 더욱 심화되어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인 산업은 건설업(-2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20.6%), 도매 및 소매업(-16.8%), 숙박 및 음식점업(-14.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종사자수는 정보통신업 분야만 증가하고, 나머지 산업영역은 큰 감소세를 보임.

〈표 Ⅱ-2〉 연도별 전국 소상공인 종사자수 변화추이('18~'20)

산업별	2018	2019	2020	증감률(%)	
	총 종사자수 (명)	총 종사자수 (명)	총 종사자수 (명)	'18년대비	'19년대비
전산업	6,320,273	6,443,431	5,565,987	-11.9	-13.6
제조업	1,181,539	1,176,595	1,095,626	-7.3	-6.9
건설업	462,692	492,457	387,643	-16.2	-21.3
도매 및 소매업	1,827,061	1,870,109	1,556,299	-14.8	-16.8
숙박 및 음식점업	1,550,726	1,552,837	1,322,368	-14.7	-14.8
정보통신업	44,896	47,444	48,877	8.9	3.0
부동산업	170,846	174,342	155,296	-9.1	-10.9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91,281	100,734	98,033	7.4	-2.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00,461	116,184	100,051	-0.4	-13.9
교육 서비스업	271,724	283,302	256,310	-5.7	-9.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84,146	188,013	149,340	-18.9	-20.6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434,901	441,414	396,144	-8.9	-10.3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kosis, kostat.go.kr),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데이터 자료.

2) 전국 소상공인 경영실태 추이

○ 전국 소상공인의 총매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현재 약 661조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 시점인 2019년보다 1.6%가(약 10.5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국 소상공인들의 매출액은 전체적으로 2018년 대비 2.6%, 2019년대비 1.6%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산업중분류별 기준으로 볼 때 전국 소상공인의 매출액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13.0%)이 가장 높은 감소세를 보였고, 그다음은 교육서비스업(-7.8%), 도매 및 소매업(-1.3%) 등으로 나타남.
- 그러나 나머지 산업영역은 모두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부동산업(19.2%), 건설업(18.3%), 전문과학기술업(6.1%) 등의 매출액이 큰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됨.

〈표 Ⅱ-3〉 연도별 전국 소상공인 총매출액 변화추이(`18~`20)

산업별	2018	2019	2020	증감률(%)	
	총 매출액 (백만원)	총 매출액 (백만원)	총 매출액 (백만원)	`18년대비	`19년대비
전산업	644,296,794	650,424,913	660,855,744	2.6	1.6
제조업	154,353,927	154,005,356	154,323,023	0.0	0.2
건설업	53,702,883	51,874,146	61,362,286	14.3	18.3
도매 및 소매업	301,449,316	306,428,325	302,317,398	0.3	-1.3
숙박 및 음식점업	77,969,927	79,882,616	82,716,519	6.1	3.5
정보통신업	4,324,847	4,765,506	4,973,293	15.0	4.4
부동산업	8,117,603	8,112,978	9,671,109	19.1	19.2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7,678,904	8,391,360	8,904,275	16.0	6.1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542,174	7,350,832	7,775,896	3.1	5.8
교육 서비스업	7,688,966	8,669,054	7,990,878	3.9	-7.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371,806	6,678,569	5,811,199	-8.8	-13.0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5,096,441	14,266,171	15,009,868	-0.6	5.2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kosis, kostat.go.kr),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데이터 자료.

○ 전국 소상공인의 총 영업비용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현재 약 602.9조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 시점보다 7.8% 증가하여 43.4조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전국 소상공인들의 영업비용은 계속 증가추세를 보여 2020년 현재 전체적으로

2018년 대비 9.3%, 2019년 대비로는 7.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산업중분류별 기준으로 볼 때 전국 소상공인 영업비용은 코로나19 발생 이전 시점인 2019년에 비해 부동산업(32.0%)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그다음은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25.7%), 교육 서비스업(23.0%), 숙박 및 음식점업(21.5%), 건설업(18.3%),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16.3%) 등의 순으로 분석됨.
- 반면에 다른 산업들과 달리 상대적으로 제조업(0.8%), 정보통신업(0.8%), 도매 및 소매업(4.5%) 등의 산업영역은 영업비용의 증가율이 낮았던 것으로 나타남.

〈표 II-4〉 연도별 전국 소상공인 총 영업비용 변화추이(`18~`20)

산업별	2018	2019	2020	증감률(%)	
	총영업비용(백만원)	총영업비용(백만원)	총영업비용(백만원)	`18년대비	`19년대비
전산업	551,553,482	559,431,608	602,850,680	9.3	7.8
제조업	135,643,516	135,161,137	136,295,182	0.5	0.8
건설업	50,250,606	48,408,378	57,249,077	13.9	18.3
도매 및 소매업	265,231,259	271,182,966	283,352,962	6.8	4.5
숙박 및 음식점업	57,578,663	60,841,411	73,892,886	28.3	21.5
정보통신업	3,968,943	4,517,010	4,554,947	14.8	0.8
부동산업	6,045,623	5,575,981	7,362,745	21.8	32.0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6,432,474	7,065,580	7,971,567	23.9	12.8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6,545,257	6,487,340	7,387,267	12.9	13.9
교육 서비스업	5,036,505	5,693,454	7,005,696	39.1	23.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865,541	4,711,715	5,477,415	12.6	16.3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9,955,097	9,786,637	12,300,936	23.6	25.7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kosis, kostat.go.kr),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데이터 자료.

○ 전국 소상공인들의 총영업이익은 2020년 현재 58조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 시점인 2019년과 비교할 때 무려 -36.3%인 약 33.0조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국 소상공인들의 영업이익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코로나19 발생 이전 시기인 2018년 대비 -37.5%, 2019년 대비로는 -36.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산업중분류별 기준으로 볼 때, 전국 소상공인들의 영업이익이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인 산업은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83.0%)이며, 그다음은 교육 서비스업(-66.9%),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55.0%), 숙박 및 음식점업(-53.7%), 도매 및 소매업(-46.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에 상대적으로 정보통신업(68.4%)과 건설업(18.7%)은 오히려 영업이익이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표 Ⅱ-5〉 연도별 전국 소상공인 총 영업이익 변화추이(`18~`20)

산업별	2018	2019	2020	증감률(%)	
	총영업이익(백만원)	총영업이익(백만원)	총영업이익(백만원)	`18년대비	`19년대비
전산업	92,743,312	90,993,305	58,005,064	-37.5	-36.3
제조업	18,710,411	18,844,219	18,027,841	-3.6	-4.3
건설업	3,452,278	3,465,768	4,113,209	19.1	18.7
도매 및 소매업	36,218,057	35,245,359	18,964,436	-47.6	-46.2
숙박 및 음식점업	20,391,265	19,041,204	8,823,633	-56.7	-53.7
정보통신업	355,904	248,497	418,346	17.5	68.4
부동산업	2,071,980	2,536,997	2,308,364	11.4	-9.0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1,246,430	1,325,780	932,708	-25.2	-29.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996,917	863,492	388,629	-61.0	-55.0
교육 서비스업	2,652,461	2,975,600	985,182	-62.9	-66.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506,265	1,966,854	333,784	-77.8	-83.0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5,141,343	4,479,534	2,708,932	-47.3	-39.5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kosis, kostat.go.kr),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데이터 자료.

2. 충북의 소상공인 현황과 경영실태 추이

1) 충북 소상공인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현황

○ 2020년 현재 충북의 소상공인 총사업체수는 약 9.5만개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19년(9.0만개)에 비해 4,171개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충북 소상공인 사업체수는 전체적으로 지난 2018년 대비 7.0%, 2019년 대비로는 4.6%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산업중분류별을 기준으로 할 때 지난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산업은 건설업(19.0%)이며, 그다음은 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10.2%), 정보통신업(9.3%),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8.0%) 등인 것으로 나타남.
- 반면에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오히려 전국과 마찬가지로 이들 산업 영역에서 -1.3%의 역성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표 Ⅱ-6〉 연도별 충북지역 소상공인 사업체수 변화추이(`18~`20)

산업별	2018	2019	2020	증감률(%)	
	총 사업체수 (개)	총 사업체수 (개)	총 사업체수 (개)	`18년대비	`19년대비
전산업	88,375	90,394	94,565	7.0	4.6
제조업	9,802	10,133	10,479	6.9	3.4
건설업	4,102	4,274	5,084	23.9	19.0
도매 및 소매업	27,789	28,185	28,724	3.4	1.9
숙박 및 음식점업	24,562	25,092	26,878	9.4	7.1
정보통신업	219	258	282	28.8	9.3
부동산업	2,535	2,534	2,633	3.9	3.9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1,128	1,216	1,313	16.4	8.0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541	1,651	1,819	18.0	10.2
교육 서비스업	3,678	3,682	3,696	0.5	0.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468	3,536	3,491	0.7	-1.3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9,551	9,833	10,166	6.4	3.4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kosis, kostat.go.kr),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데이터 자료.

○ 2020년 현재 충북의 소상공인 종사자수는 17.7만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 시점인 2019년(20.7만명)에 비해 14.5%가 감소해 약 3만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표 Ⅱ-7〉 연도별 충북지역 소상공인 종사자수 변화추이(`18~`20)

산업별	2018	2019	2020	증감률(%)	
	총 종사자수 (명)	총 종사자수 (명)	총 종사자수 (명)	`18년대비	`19년대비
전산업	198,696	207,380	177,411	-10.7	-14.5
제조업	33,246	34,321	32,055	-3.6	-6.6
건설업	19,423	20,853	16,169	-16.8	-22.5
도매 및 소매업	55,044	57,864	47,958	-12.9	-17.1
숙박 및 음식점업	54,225	55,780	47,213	-12.9	-15.4
정보통신업	502	556	567	12.9	2.0
부동산업	3,731	3,591	3,227	-13.5	-10.1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2,412	2,604	2,590	7.4	-0.5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051	3,843	3,237	6.1	-15.8
교육 서비스업	7,364	7,477	6,472	-12.1	-13.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172	6,478	5,030	-18.5	-22.4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3,526	14,013	12,893	-4.7	-8.0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kosis, kostat.go.kr),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데이터 자료.

- 충북의 소상공인 종사자수는 전체적으로 2018년 대비 -10.7%, 2019년에 비해서는 -14.5% 감소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음.
- 산업별 중분류 기분으로 볼 때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도 종사자수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소세가 더욱 심화되어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인 산업은 건설업(-22.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22.4%), 도매 및 소매업(-17.1%), 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15.8%), 숙박 및 음식점업(-15.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소상공인 종사자수는 전국과 마찬가지로 정보통신업 분야만 증가(2.0%)하고, 나머지 산업영역은 모두 감소함.

2) 충북 소상공인 경영실태 추이

○ 충북지역의 소상공인 총매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현재 약 20.6조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 시점인 2019년보다 4.3%가(약 8,45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Ⅱ-8〉 연도별 충북지역 소상공인 총매출액 변화추이('18~'20)

산업별	2018	2019	2020	증감률(%)	
	총 매출액 (백만원)	총 매출액 (백만원)	총 매출액 (백만원)	'18년대비	'19년대비
전산업	19,238,453	19,796,304	20,641,371	7.3	4.3
제조업	4,843,613	5,125,291	5,227,053	7.9	2.0
건설업	1,723,536	1,714,796	2,219,635	28.8	29.4
도매 및 소매업	8,697,275	8,851,432	8,904,760	2.4	0.6
숙박 및 음식점업	2,516,420	2,599,791	2,733,598	8.6	5.1
정보통신업	33,316	32,102	41,451	24.4	29.1
부동산업	109,620	116,673	145,887	33.1	25.0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157,571	169,368	174,618	10.8	3.1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60,088	291,227	306,838	18.0	5.4
교육 서비스업	202,807	217,279	196,191	-3.3	-9.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96,619	206,523	187,530	-4.6	-9.2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497,587	471,822	503,810	1.3	6.8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kosis, kostat.go.kr),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데이터 자료.

- 충북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액은 전체적으로 2018년 대비 7.3%, 2019년 대비 4.3%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산업중분류별 기준으로 볼 때 충북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액은 교육 서비스업(-9.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2%)이 가장 높은 감소추세를 기록함.

- 그러나 나머지 산업영역은 모두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건설업(29.4%), 정보통신업(29.1%), 부동산업(25.0%) 등의 매출액이 큰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됨.

○ 한편, 충북지역 소상공인의 총 영업비용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현재 약 18.6조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 시점보다 11.6% 증가하여 1.9조원 정도가 늘어남.

- 충북지역 소상공인들의 영업비용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여 2020년 현재 전체적으로 2018년 대비 14.9%, 2019년 대비로는 11.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9〉 연도별 충북지역 소상공인 총 영업비용 변화추이(`18~`20)

산업별	2018	2019	2020	증감률(%)	
	총영업비용(백만원)	총영업비용(백만원)	총영업비용(백만원)	`18년대비	`19년대비
전산업	16,184,160	16,655,761	18,587,745	14.9	11.6
제조업	4,305,892	4,523,403	4,673,629	8.5	3.3
건설업	1,621,319	1,561,261	2,021,240	24.7	29.5
도매 및 소매업	7,502,503	7,545,967	8,325,597	11.0	10.3
숙박 및 음식점업	1,731,980	1,990,428	2,323,558	34.2	16.7
정보통신업	30,038	30,608	47,246	57.3	54.4
부동산업	89,090	78,917	110,619	24.2	40.2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114,242	127,899	147,959	29.5	15.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20,784	247,562	284,339	28.8	14.9
교육 서비스업	122,611	125,508	143,283	16.9	14.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22,970	131,805	155,991	26.9	18.3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322,731	292,402	354,285	9.8	21.2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kosis, kostat.go.kr),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데이터 자료.

- 산업중분류별 기준으로 볼 때, 충북지역 소상공인 영업비용은 코로나19 발생 이전 시점인 2019년에 비해 정보통신업(54.4%)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그다음은 부동산업(40.2%), 건설업(29.5%),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21.2%),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18.3%), 숙박 및 음식점업(16.7%), 등의 순으로 분석됨.

- 반면에 충북지역은 다른 산업들과 달리 상대적으로 제조업(3.3%)의 경우에는 영업비용의 증가율이 전국수준보다는 높았으나 다른 산업에 비해 낮았던 것으로 나타남.

○ 충북지역 소상공인들의 총영업이익은 2020년 현재 약 2.1조원으로 코로나19의 발생 이전 시점인 2019년 대비 무려 -34.6%인 약 1.1조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충북지역 소상공인들의 총 영업이익의 변화 추이를 보면, 코로나19 발생 이전 시기인

2018년 대비 -32.8%, 2019년과 비교하면 -34.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Ⅱ-10〉 연도별 충북 소상공인 총 영업이익 변화추이('18~'20)

산업별	2018	2019	2020	증감률(%)	
	총영업이익(백만원)	총영업이익(백만원)	총영업이익(백만원)	'18년대비	'19년대비
전산업	3,054,293	3,140,543	2,053,626	-32.8	-34.6
제조업	537,721	601,888	553,424	2.9	-8.1
건설업	102,218	153,534	198,395	94.1	29.2
도매 및 소매업	1,194,772	1,305,464	579,163	-51.5	-55.6
숙박 및 음식점업	784,440	609,363	410,040	-47.7	-32.7
정보통신업	3,278	1,494	-5,795	-276.8	-487.9
부동산업	20,530	37,756	35,268	71.8	-6.6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43,329	41,469	26,659	-38.5	-35.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9,304	43,665	22,499	-42.8	-48.5
교육 서비스업	80,196	91,771	52,908	-34.0	-42.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73,649	74,718	31,539	-57.2	-57.8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74,856	179,420	149,525	-14.5	-16.7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kosis, kostat.go.kr),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데이터 자료.

- 산업중분류별 기준으로 볼 때, 충북지역 소상공인들의 영업이익이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인 산업은 정보통신업(-487.9%)이며, 2020년 현재 약 58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그다음으로 높은 영업이익 감소율을 보인 것은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57.8%)이며, 도매 및 소매업(-55.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48.5%), 교육 서비스업(-42.3%),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35.7%), 숙박 및 음식점업(-32.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에 상대적으로 건설업(29.2%)은 오히려 높은 영업이익이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3. 전국 및 충북의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애로 요인

1) 전국의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애로 요인

○ 전국 소상공인들의 2020년 현재 창업 동기는 자신만의 창업을 하고 싶어서(67.0%)가 가장 많았음.

-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이후의 창업동기 흐름은 변화가 없었으며, 2019년과 대비할 때 자신만의 사업을 경영하고 싶어서는 6.8%p가 증가하고, 임금근로자로 취업이 어려워서는 1.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수입이 더 많을 것 같아서는 -5.4%p, 기타 -0.8%p로 감소함.
- 결국, 전국 소상공인들의 창업 동기는 자신만의 사업을 경영하고 싶어서(67.0%), 수입이 더 많을 것 같아서(29.0%), 임금근자로 취업이 어려워서(7.0%), 기타(1.8%) 순으로 나타남.

〈표 II-11〉 연도별 전국 소상공인 창업동기 변화추이('18~'20)

산업별	2018	2019	2020	증감률(%)	
				'18년대비	'19년대비
임금근로자로 취업이 어려워서	7.8	6.0	7.0	-0.8	1.0
자신만의 사업을 경영하고 싶어서	58.6	60.2	67.0	8.4	6.8
수입이 더 많을 것 같아서	31.1	34.4	29.0	-2.1	-5.4
기 타	2.5	2.6	1.8	-0.7	-0.8
합 계(%)	100.0	100.0	100.0	-	-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kosis, kostat.go.kr),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데이터 자료.

○ 전국 소상공인들의 2020년 현재 창업 준비기간은 사업체당 9.6개월로 전년(2019년) 대비 0.6개월 감소함.

- 3개월 미만과 3~6개월 미만은 각각 1.2%p 증가하였고, 6~12개월 미만(-0.1%p), 12~24개월 미만(-1.5%p), 24개월 미상(-0.8%p)은 감소함.

〈표 Ⅱ-12〉 연도별 전국 소상공인 창업준비기간 변화추이(`18~`20)

구 분	2018	2019	2020	증감률(%)	
				`18년대비	`19년대비
평균(개월)	9.5	10.2	9.6	0.1	-0.6
3개월 미만	16.3	12.9	14.1	-2.2	1.2
3~6개월 미만	17.8	19.9	21.1	3.3	1.2
6~12개월 미만	24.4	25.8	25.7	1.3	-0.1
12~24개월 미만	25.2	28.8	27.3	2.1	-1.5
24개월 이상	11.5	12.6	11.8	0.3	-0.8
합 계(%)	100.0	100.0	100.0	-	-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kosis, kostat.go.kr),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데이터 자료.

○ 2020년 현재 전국 소상공인들의 창업 비용은 사업체당 평균 89.1백만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보다 12.8백만원이 감소함.

- 전체적으로 소상공인의 창업비용은 코로나 19 발생 이전보다 총 창업비용과 본인 부담금액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총 창업비용은 12.8백만원, 본인 부담금액은 6.6백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Ⅱ-13〉 연도별 전국 소상공인 총 창업비용 및 본인 부담금액 변화추이(`18~`20)

구 분	2018	2019	2020	증감	
				`18년대비	`19년대비
총 창업비용(백만원)	102.9	101.9	89.1	-13.8	-12.8
본인 부담 금액(백만원)	72.0	74.8	68.2	-3.8	-6.6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kosis, kostat.go.kr),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데이터 자료.

○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창업에 대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100.0%, 매우 어려움)은 자금조달, 입지선정, 기술확보, 경영방법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에 상대적으로 창업에 가장 어려움이 없는 것(0%)으로 나타난 부문은 업종선택, 인력확보, 행정절차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II-14〉 연도별 전국 소상공인 창업 어려움 정도 변화추이('18~'20)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어려움 정도																	
	합계	0%	25%	50%	75%	100%	합계	0%	25%	50%	75%	100%	합계	0%	25%	50%	75%	100%
입지선정	100.0	15.6	17.0	29.1	23.4	14.9	100.0	13.5	14.1	29.3	25.6	17.5	100.0	14.5	14.4	32.8	24.6	13.7
업종선택	100.0	30.4	23.7	26.4	12.9	6.6	100.0	25.5	21.0	28.4	17.6	7.7	100.0	25.4	19.8	30.3	17.6	6.9
자금조달	100.0	11.0	14.1	26.8	24.5	23.7	100.0	8.3	11.0	29.3	28.5	22.9	100.0	9.0	12.2	30.5	26.2	22.1
기술확보	100.0	27.4	24.8	25.1	14.4	8.2	100.0	22.9	20.9	29.6	17.7	8.9	100.0	21.3	20.2	33.3	15.4	9.8
인력확보	100.0	28.2	23.5	24.4	14.1	9.9	100.0	25.2	21.5	28.5	15.1	9.6	100.0	24.4	22.9	29.1	14.5	9.1
행정절차	100.0	28.5	30.1	26.2	11.1	4.1	100.0	25.0	24.7	32.2	13.2	5.0	100.0	24.3	26.0	33.7	11.0	5.1
경영방법	100.0	19.8	23.8	31.7	15.9	8.8	100.0	16.8	17.8	36.4	19.1	9.9	100.0	17.7	20.0	36.2	16.8	9.3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kosis, kostat.go.kr),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데이터 자료.

○ 2020년 현재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사업체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은 경쟁심화(38.3%), 상권쇠퇴(37.7%), 원재료비(28.5%), 방역조치(21.1%), 보증금 및 월세(17.5%), 최저임금영향(11.0%) 순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상권쇠퇴가 경쟁심화, 원재료비, 최저임금 순이었으며, 그 이후에는 방역조치에 대한 애로사항이 크게 부각되고 있음.

〈표 II-15〉 연도별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복수응답) 변화추이('18~'20)

구 분	상권 쇠퇴	경쟁 심화	원재료비	최저 임금영향	보증금 및 월세	부채 상환	인력 관리	방역 조치	기타
2018년	45.1	43.3	30.2	18.0	16.2	9.8	9.1	-	5.6
2019년	45.1	42.2	26.6	18.2	18.3	11.8	8.1	-	3.7
2020년	37.7	38.3	28.5	11.0	17.5	9.5	6.6	21.1	3.0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kosis, kostat.go.kr),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데이터 자료.

○ 2020년 현재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바라는 중점추진 희망정책은 자금지원이 74.5%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세제지원(54.5%), 판로지원(16.6%), 인력지원(11.6%), 정보화지원(5.6%) 순으로 나타남.

〈표 Ⅱ-16〉 연도별 전국 소상공인 중점추진 희망정책(복수응답) 변화추이('18~'20)

구분	자금지원	인력지원	세제지원	기술지원	판로지원	정보화지원	퇴로지원	기타
2018(개)	1,842,296	383,153	1,526,031	149,086	528,052	211,876	171,622	83,380
비중(%)	67.2	14.0	55.7	5.4	19.3	7.7	6.3	3.0
2019(개)	1,977,417	356,528	1,526,137	115,342	528,466	172,042	136,830	51,906
비중(%)	71.4	12.9	55.1	4.2	19.1	6.2	4.9	1.9
2020(개)	2,156,027	334,437	1,578,714	118,929	481,600	161,849	99,977	48,640
비중(%)	74.5	11.6	54.5	4.1	16.6	5.6	3.5	1.7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kosis, kostat.go.kr),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데이터 자료.

○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바라는 재난대응에 필요한 정책은 재난지원금 등 보조금지급(68.0%), 정책자금 융자 확대(32.4%), 사회보험료 완화 지원(21.0%), 방역조치 개선 완화(20.9%), 임대료 상생제도 마련(16.6%)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Ⅱ-17〉 전국 소상공인 재난대응 필요정책('20년)

구 분	2020년(복수응답)								
	사업체 수	재난지원금 등 보조금 지원	정책자금 융자 확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등 방역조치 개선, 완화	착한임대인 등 임대료 상생제도 마련	디지털, 비대면 서비스 지원	4대보험료, 국민연금 감면 등 사회보험료 완화, 지원	소상공인 사회재난보험 제도 신설	기타
사업체수	2,894,360	1,966,883	936,591	605,149	480,905	43,777	607,569	389,893	22,323
비중(%)	100.0	68.0	32.4	20.9	16.6	1.5	21.0	13.5	0.8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kosis, kostat.go.kr),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데이터 자료.

2) 충북지역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애로 요인

○ 충북지역 소상공인들의 2020년 현재 창업 동기는 자신만의 창업을 하고 싶어서(69.5%)가 가장 많아 전국평균 수준보다도 조금 높게 나타남.

- 충북지역 소상공인의 창업 동기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시점과 비교할 때 자신만의 사업을 하고 싶어서(13.9%p)는 증가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임금근로자로 취업이 어려워서(-2.0%p), 수입이 더 많을 것 같아서(-8.3%p), 기타(-3.65%p)는 감소함.

〈표 II-18〉 연도별 충북지역 소상공인 창업동기 변화추이(`18~`20)

산업별	2018	2019	2020	증감률(%)	
				`18년대비	`19년대비
임금근로자로 취업이 어려워서	6.5	3.9	1.9	-4.6	-2.0
자신만의 사업을 경영하고 싶어서	65.5	55.6	69.5	4.0	13.9
수입이 더 많을 것 같아서	26.2	36.8	28.5	2.3	-8.3
기 타	1.8	3.7	0.1	-1.7	-3.6
합 계(%)	100.0	100.0	100.0	-	-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kosis, kostat.go.kr),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데이터 자료.

○ 충북지역 소상공인들의 2020년 현재 창업 준비기간은 사업체당 9.6개월로 전국과 동일하며, 전년(2019년) 대비 0.6개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3개월 미만(-6.6%p), 3~6개월 미만(-10.2%p)은 감소하였고, 6~12개월 미만(8.3%p), 12~24개월 미만(2.8%p), 24개월 미상(5.7%p)은 증가함.
- 이는 전국평균 소상공인들의 창업준비기간에 비해 6개월 미만에서는 비중이 낮고, 6개월 이상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창업 준비기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으로 분석됨.

〈표 II-19〉 연도별 충북지역 소상공인 창업준비기간 변화추이(`18~`20)

구 분	2018	2019	2020	증감률(%)	
				`18년대비	`19년대비
평균(개월)	10.4	10.2	9.6	-0.8	-0.6
3개월 미만	19.6	18.0	11.4	-8.2	-6.6
3~6개월 미만	17.8	20.2	10.1	-7.7	-10.2
6~12개월 미만	25.3	28.0	36.3	11.0	8.3
12~24개월 미만	21.6	25.0	27.8	6.2	2.8
24개월 이상	15.8	8.7	14.4	-1.4	5.7
합 계(%)	100.0	100.0	100.0	-	-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kosis, kostat.go.kr),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데이터 자료.

○ 2020년 현재 충북지역 소상공인들의 창업 비용은 사업체당 평균 88.6백만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보다 32.6백만원이 감소함.

- 전체적으로 소상공인의 창업비용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총 창업비용과 본인

부담금액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총 창업비용은 32.6백만원, 본인 부담금액은 14.8백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Ⅱ-20〉 연도별 충북지역 소상공인 총 창업비용 및 본인 부담금액 변화추이('18~'20)

구 분	2018	2019	2020	증감	
				'18년대비	'19년대비
총 창업비용(백만원)	105.9	121.2	88.6	-17.3	-32.6
본인 부담 금액(백만원)	76.5	84.3	69.5	-7.0	-14.8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kosis, kostat.go.kr),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데이터 자료.

○ 충북지역 소상공인들이 창업에 대해 가장 어려워 하는 부분(매우 어려움)은 자금조달, 입지선정, 업종선택, 기술확보, 인력확보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에 창업에 가장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부문은 행정절차, 인력확보, 경영방법, 업종선택 순으로 나타남.

〈표 Ⅱ-21〉 연도별 충북지역 소상공인 창업 어려움 정도 변화추이('18~'20)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어려움 정도																	
	합계	0%	25%	50%	75%	100%	합계	0%	25%	50%	75%	100%	합계	0%	25%	50%	75%	100%
입지선정	100.0	22.5	24.0	29.7	15.4	8.3	100.0	20.6	17.3	30.0	21.7	10.4	100.0	14.4	17.5	35.2	25.2	7.7
업종선택	100.0	35.5	23.1	28.3	6.7	6.4	100.0	35.5	22.7	24.0	14.6	3.3	100.0	27.7	21.3	27.7	21.9	1.4
자금조달	100.0	11.3	13.2	26.8	32.6	16.2	100.0	13.9	9.9	24.5	30.2	21.5	100.0	12.3	13.6	34.4	27.8	11.8
기술확보	100.0	28.9	28.2	24.8	10.8	7.3	100.0	33.4	18.2	23.8	15.9	8.8	100.0	27.2	17.6	34.8	15.4	5.1
인력확보	100.0	28.2	23.9	20.4	17.8	9.8	100.0	37.5	19.3	22.5	13.6	7.1	100.0	32.8	26.7	25.5	9.1	5.9
행정절차	100.0	31.6	31.5	30.6	3.9	2.4	100.0	40.7	25.8	22.9	7.8	2.8	100.0	35.9	28.4	23.8	9.7	2.2
경영방법	100.0	19.4	23.6	37.3	13.1	6.6	100.0	34.1	20.7	27.9	9.5	7.8	100.0	32.0	24.8	30.4	10.0	2.8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kosis, kostat.go.kr),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데이터 자료.

○ 2020년 현재 충북의 소상공인들이 사업체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은 경쟁심화(41.2%), 상권쇠퇴(40.3%), 원재료비(29.2%), 방역조치(23.7%), 보증금 및 월세(12.7%), 최저임금영향(10.5%) 순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경쟁심화, 상권쇠퇴, 원재료비, 최저임금 영향 순이었으며, 그 이후에는 방역조치에 대한 애로사항이 크게 부각되고 있음.

- 특히, 충북지역의 경우 경쟁심화와 상권쇠퇴, 원재료비, 방역조치 등의 부문에서 더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II-22〉 연도별 충북지역 소상공인의 사업체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복수응답) 변화추이('18~'20)

구 분	상권 쇠퇴	경쟁 심화	원재료비	최저 임금영향	보증금 및 월세	부채 상환	인력 관리	방역 조치	기타
2018년	47.5	43.8	33.5	15.3	9.5	10.6	9.6		3.6
2019년	42.1	45.7	28.0	20.4	15.9	12.0	10.3		1.9
2020년	40.3	41.2	29.2	10.5	12.7	8.1	6.5	23.7	2.3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kosis, kostat.go.kr),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데이터 자료.

○ 2020년 현재 충북지역 소상공인들이 바라는 중점추진 희망정책은 자금지원이 65.1%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세제지원(56.6%), 판로지원(18.3%), 인력지원(18.0%), 정보화지원(8.2%) 순으로 나타남.

- 이를 전국 소상공인과 비교할 때 순위는 같았으나 상대적으로 충북에선 자금지원과 기술지원은 낮게 나타났고, 세제지원과 인력지원, 판로지원, 정보화지원 등은 다소 높게 나타남.

〈표 II-23〉 연도별 충북지역 소상공인의 중점추진 희망정책(복수응답) 변화추이('18~'20)

구분	자금지원	인력지원	세제지원	기술지원	판로지원	정보화지원	퇴로지원	기타
2018(개)	57,833	12,001	48,532	3,975	17,366	4,391	5,557	3,512
비중(%)	65.4	13.6	54.9	4.5	19.7	5.0	6.3	4.0
2019(개)	69,178	12,270	48,541	3,743	17,605	5,768	2,554	575
비중(%)	76.5	13.6	53.7	4.1	19.5	6.4	2.8	0.6
2020(개)	61,580	17,057	53,526	3,104	17,329	7,730	3,808	1,708
비중(%)	65.1	18.0	56.6	3.3	18.3	8.2	4.0	1.8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kosis, kostat.go.kr),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데이터 자료.

○ 충북지역 소상공인들이 바라는 재난대응에 필요한 정책은 재난지원금 등 보조금지급(60.4%), 정책자금 융자 확대(27.0%), 방역조치 개선 완화(25.5%), 임대료 상생제도 마련(22.1%)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Ⅱ-24〉 충북지역 소상공인 재난대응 필요정책('20년)

구 분	2020년(복수응답)								
	사업체 수	재난지원금 등 보조금 지원	정책자금 융자 확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등 방역조치 개선, 완화	착한임대인 등 임대료 상생제도 마련	디지털, 비대면 서비스 지원	4대보험료, 국민연금 감면 등 사회보험료 완화, 지원	소상공인 사회재난보험 제도 신설	기타
사업체수	94,565	57,112	25,545	24,118	20,969	1,952	20,792	16,036	2,109
비중(%)	100.0	60.4	27.0	25.5	22.2	2.1	22.0	17.0	2.2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kosis, kostat.go.kr),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데이터 자료.

제Ⅲ장
국내외 소상공인 지원제도와 정책시사점

1. 국내 소상공인 관련 법률 제도 검토

1) 소상공인 관련 국가 법률제도

○ 소상공인과 관련한 국가법령에는 크게 1)소상공인 기본법 2)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음.

- 소상공인 기본법은 총 6장 3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그간 개별법 또는 각 부처에 흩어져 관리해 오던 소상공인 관련 정책 등을 총괄하고, 독자적인 정책 영역화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법률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시책(창업, 디지털화, 혁신촉진 등), 소상공인 보호 시책(경영안정 및 공정경쟁 상생협력 촉진 등), 소상공인 시책의 기반 조성(전문평가기관설치, 단체결성, 지원기관설치 등) 등으로 구성돼 있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 촉진과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해 소상공인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총 8장 30조로 구성하였었으나 최근에 일부개정이 이루어져 삭제되면서 현재는 총 7장 25조만 남아있는 상황이며,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소상공인 진흥공단 설립 운영,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 소상공인연합회 설립 운영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은 총 1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해 보호·육성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생계형 소상공인 보호 육성 계획,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대기업의 참여 제한, 이행강제금, 권한 및 업무의 위임 위탁, 벌칙, 과태료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소상공인 관련 법률에 따라 각각의 법률에 해당하는 시행령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 시행령에 준거하여 법률 운용과 구체적인 지침 등으로 활용되고 있음.

〈표 Ⅲ-1〉 소상공인 관련 국가법령 제정 운용현황('22년 7월 현재)

법령명	공포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시행일자	제정·개정구분	소관부처
소상공인기본법	2020. 12. 8.	법률	제17623호	2021. 3. 9.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30.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1. 7. 7.	법률	제18292호	2021. 10. 8.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 2. 7.	대통령령	제32391호	2022. 2. 7.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 10. 19.	중소벤처기업부령	제52호	2021. 10. 19.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2020. 2. 4.	법률	제16954호	2021. 2. 5.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법령 및 자치법규 자료.

2) 소상공인 관련 자치법규 제정현황

○ 소상공인과 관련한 법률을 기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과 관련한 자치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해 오고 있는데, 2022년 7월 현재 전국적으로 총 325개의 소상공인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음.

- 광역지자체의 경우에는 17개 광역 시·도에서 총 30개의 소상공인 관련 자치조례를 제정해 운용하고 있고, 시·군·구를 포함한 기초지자체에서는 총 295개 자치조례를 제정해 운용하고 있음.

〈표 Ⅲ-2〉 소상공인 관련 광역지자체 조례제정 운용현황('22년 7월 현재)

법령명	지역	제정·개정 구분	법령 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부서
강원도 산불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금 지급 조례	강원	일부개정	조례	제4445호	2019. 9. 20.	2019. 10. 8.	
강원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강원	일부개정	조례	제4188호	2017. 9. 29.	2017. 9. 29.	
경기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	경기	제정	조례	제6868호	2021. 1. 8.	2021. 1. 8.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	일부개정	조례	제7035호	2021. 5. 20.	2021. 5. 20.	소상공인과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경남	일부개정	조례	제4991호	2021. 7. 8.	2021. 7. 8.	일자리경제국 소상공인정책과
경상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경북	제정	조례	제4353호	2020. 7. 9.	2020. 7. 9.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광주	일부개정	조례	제5907호	2022. 3. 2.	2022. 3. 2.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	일부개정	조례	제5608호	2021. 8. 10.	2021. 8. 10.	민생경제과
대전광역시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대전	제정	조례	제5813호	2022. 2. 17.	2022. 2. 17.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대전	일부개정	조례	제5663호	2021. 6. 30.	2021. 6. 30.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대전	일부개정	조례	제5750호	2021. 12. 29.	2021. 12. 29.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	전부개정	조례	제6504호	2021. 9. 29.	2021. 9. 29.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부산	일부개정	조례	제5934호	2019. 7. 10.	2019. 7. 10.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서울	일부개정	조례	제8143호	2021. 9. 30.	2021. 9. 30.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서울	타법개정	규칙	제4198호	2018. 1. 18.	2018. 1. 18.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	일부개정	조례	제8245호	2021. 12. 30.	2021. 12. 30.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서울	타법개정	조례	제7918호	2021. 3. 25.	2021. 3. 25.	공정경제담당관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세종	일부개정	조례	제1929호	2022. 4. 20.	2022. 4. 20.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울산	제정	조례	제2449호	2021. 9. 24.	2021. 9. 24.	중소벤처기업과
울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울산	일부개정	조례	제2632호	2022. 7. 15.	2022. 7. 21.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	일부개정	조례	제6834호	2022. 4. 21.	2022. 4. 21.	
전라남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남	일부개정	조례	제5364호	2021. 7. 29.	2021. 7. 29.	중소벤처기업과
전라남도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상점가 디자인 개발 지원 조례	전남	제정	조례	제5501호	2021.12. 30.	2021. 12. 30.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	일부개정	조례	제4919호	2021. 5. 14.	2021. 5. 14.	
전라북도 소상공인 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북	일부개정	조례	제4134호	2015. 10. 30.	2015. 10. 30.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주	일부개정	조례	제2904호	2021. 8. 9.	2021. 8. 9.	소상공인기업과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충남	일부개정	조례	제5058호	2021. 9. 30.	2021. 9. 30.	소상공기업과
충청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충남	제정	조례	제5118호	2021. 12. 30.	2021. 12. 30.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충북	일부개정	조례	제4772호	2022. 6. 30.	2022. 6. 30.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법령 및 자치법규 자료.

3) 충북지역 소상공인 관련 자치법규 제정현황

○ 충북지역의 소상공인과 관련한 자치법규 제도 기반은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 충북지역에는 모두 14개의 소상공인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광역자치단체인 충북도의 조례가 1개, 기초자치단체인 11개 시·군에서는 모두 13개의 소상공인 관련 자치조례가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음.

- 전체적으로 보면, 충북도와 9개 시·군은 소상공인 관련 지원 조례가 1개씩이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고, 옥천군은 시행규칙이 제천시는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가 추가되어 2개의 조례가 운용되고 있음.

〈표 Ⅲ-3〉 충북지역 소상공인 관련 자치조례 제정현황('22년 7월 현재)

법 령 명	지역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제정일자	시행일자	부서
괴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괴산군	일부개정	조례	제2590호	2013. 06. 14.	2021. 5. 21.	경제정책팀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	단양군	일부개정	조례	제2600호	2008. 12. 01.	2021. 7. 30.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보은군	일부개정	조례	제2735호	2016. 12. 09.	2021. 12. 31.	
영동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영동군	일부개정	조례	제2896호	2017. 12. 29.	2021. 12. 30.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옥천군	일부개정	조례	제3043호	2013. 03. 05.	2021. 12. 20.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옥천군	제정	규칙	제1373호	2019. 3. 29.	2019. 3. 29.	경제과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음성군	전부개정	조례	제2787호	2014. 01. 06.	2021. 12. 8.	경제과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천시	일부개정	조례	제1672호	2014. 03. 07.	2020. 6. 5.	지역경제팀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제천시	일부개정	조례	제1766호	2009. 10. 01.	2021. 5. 7.	지역경제팀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	증평군	일부개정	조례	제1022호	2011. 03. 18.	2021. 12. 28.	
진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진천군	일부개정	조례	제2932호	2016. 05. 31.	2021. 12. 24.	
청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청주시	일부개정	조례	제831호	2014. 07. 01.	2019. 3. 15.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충주시	일부개정	조례	제1991호	2017. 12. 01.	2021. 8. 6.	경제기업과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충북도	일부개정	조례	제4772호	2019. 03. 29.	2022. 6. 30.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법령 및 자치법규 자료.

4) 소상공인 관련 지원정책

○ 우리나라에서 소상공인 정책이 시작된 것은 지난 1997년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된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음.

- 1997년 당시엔 소상공인의 개념이 없었지만 1998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영세하고 작은 점포 수준의 사업체를 ‘소상공인’으로 직접 작명한 이후부터 정부가 ‘소상공인’이라는 정책대상을 설정해 지원하기 시작함.
- 소상공인 정책의 시초는 IMF 외환위기로 기업 임금근로자의 대량 실직과 퇴직 등이 발생하자 실업률 감소와 소상공인 창업 장려를 위하여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립해 정책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한 것임.
- 소상공인의 창업 및 구조고도화 촉진을 위해 정보·교육 및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14개)를 개소하고, 이 센터와 지역신용보증조합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자금 지원을 시작함.
- 창업 정책 일환으로 시작한 소상공인 정책은 이후 경영안정화, 대기업 자본에 대한 보호 등의 문제로 확대되어 소상공인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원활한 영업활동 수행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도록 발전함.

○ 본격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이루어진 것은 지난 2005년 5월에 정부가 “영세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하면서 본격화됨.

- 이는 2005년 당시에 국내 자영업의 비중이 29.5%로 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2위로 매우 높았기 때문이었고, 자금 등 시혜적인 직접적 지원보다는 소상공인들이 자생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 등의 간접적 지원에 중점을 두었음.
- 이를 위해 과잉진입 예방,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사업전환 및 퇴출유도, 경영안정 지원, 프랜차이즈화 지원, 건전한 자영업 환경조성 등 6대 과제를 선정하여 시행함.
- 그 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2006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59개로 확대하고, 2005년 시장경영진흥원(지원센터) 설립, 2006년 소상공인진흥원 설립 등 지원을 위한 조직체계를 갖추어 나감.

- 이러한 관련 조직을 통해 조사 및 연구, 교육, 컨설팅, 조직화·협업화,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지원, 상품권, 카드수수료 등의 사업 확대, 성장단계별(창업→성장→재기)로 지원 등이 이루어짐.

○ 2008년(미국발) 및 2010년(그리스발) 금융위기 이후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노란우산공제”와 “햇살론” 등의 금융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이 추진되어 운영됨.

- 이를 위해 대규모 자본으로부터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조정제도와 대형유통의 영업시간 규제 및 의무휴업일 규제, 그리고 전통상업보존구역 등의 제도가 마련됨.

○ 2012년부터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소상공인의 협업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

- 이에 따라 공동장소임차, 공동장비구매, 공동R&D, 통합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사업 중심의 협업이 이루어짐.

○ 2014년부터는 기존에 일반 소상공인을 지원하여 오던 소상공인진흥원과 전통시장을 지원하던 시장경영진흥원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통합 설립함으로써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함.

- 이에 그간에 중소기업 창업기금 안에서 운용돼오던 소상공인진흥계정을 독립적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약 2조원)으로 전환해 정책자금 등 융자사업과 교육 및 컨설팅, 신사업모델 개발, 조직화·협업화, 정보제공, 조사·연구,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2015년 이후에는 소상공인 정책의 영역이 확대되기 시작함.

- 정부는 2015년 5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특별법 형태의 법률체계를 일반법으로 전환하였으며, 법률에 근거한 지원 대상에서 소기업을 제외하고 소상공인 정책에 집중하도록 함.

- 또한, 기존의 직접지원 중심에서 폐업 소상공인과 불공정거래 피해 지원 등 보호와 관련된 간접적 지원이 확대됨.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계약갱신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였으며, 임대료 증감 청구권도 하향 조정(9%=›5%) 하는 등 임차인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제도를 강화함.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5년부터 시행되면서 그간 정책에서 소외되어온 제조업 소상공인(소공인)에 대한 정책자금(직접대출), 집적지구 인프라, 기술가치 향상, 판로지원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짐.
- 2018년에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새로이 제정되면서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업종이나 품목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및 대기업 등의 시장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2021년 2월에는 개별 법률 등에 흩어져있던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포괄하는 “소상공인 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됨.

- 이 법률을 기반으로 소상공인의 지원 및 육성, 보호, 정책 기반 조성 등을 규정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크게 정책자금, 창업지원, 성장지원, 재기지원, 소공인 특화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일반적인 지원정책과 제도는 크게 정책자금지원, 창업지원, 성장지원, 재기지원, 특화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이 있었음.[1)]

- 정책자금지원 : 성장촉진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스마트 소상공인 전용자금 등을 지원
- 창업지원 : 상권정보시스템,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소상공인 사이버평생교육원 등을 지원
- 성장지원 : 소상공인 경영교육, 소상공인 역량강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소상공인 간편경제시스템(제로페이),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 이익공유형 사업화 지원, 중소슈퍼 협업화, 스마트슈퍼 확산,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상생협력 프렌차이즈 육성사업, 사회적 경제 기업 성장 집중지원
- 재기지원 : 희망리턴패키지,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21)지원 시책 내부자료 참고.

- 특화지원 :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클린제조환경 조성, 특화지원센터 설치 운영, 공동기반시설 구축, 복합지원센터 구축
- 전통시장 활성화 : 주차환경 개선사업,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지역선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특성화 첫걸음 시장, 청년몰 조성, 청년상인 도약지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상권르네상스 사업, 시장경영 바우처 지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태의 장기화와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과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는 저금리 대출, 자금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확대함.

○ 코로나19 발생 이후의 정부 지원예산은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2년 현재까지 6차에 걸쳐 소상공인 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음.

- 1차 지원(`20.5) : (14.3조원) 초저금리 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 경영안정자금
- 2차 지원(`20.9) : (7.8조원) 맞춤형 긴급재난 패키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 3차 지원(`21.1) : (9.3조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지원,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 4차 지원(`21.3) : (19.5조원) 경영위기업종 버팀목자금플러스, 전기요금감면, 금융지원
- 5차 지원(`21.8) : (15.7조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 6차 지원(`22.5) : (28.7조원) 손실보상, 긴급금융지원, 재기 및 자생력 강화
- 7차 지원(?) : 정부의 지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폐업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에 대해 지급하고, 지자체 등에서는 김해시, 거창군, 영광군, 과천시, 광양시, 장흥군, 사천시, 경산시, 제주도 등에서 재난지원금을 신청받아 지급 중임)
- 1~7차 까지 113만명이 신청조차 못하여, 미지급금이 2조 원이 넘는 상황(최근)

○ 한편, 충북의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는 2022년 상반기까지는 경제통상국 경제기업과 생활경제팀에서 담당하였다가, 민선8기 출범 이후 10월 7일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져 4개팀(소상공인지원팀, 시장활성화팀, 사회적경제팀, 공동체정책팀)으로 구성된 소상공인정책과를 신설하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소상공인 육성자금 운영, 충북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지원사업,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 지역사랑상품권 등
- 전통시장활성화, 상권르네상스, 전통시장 특화사업, 골목상권 활성화 등
- 사회적기업지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관리 등
- 지역공동체활성화, 정보화마을, 마을기업 육성 등

○ 또한, 이와 더불어 충북 소상공인 육성과 지원과 관련이 있는 중간단계 조직으로는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진흥공단 산하 5개의 소상공인지원센터(청주센터, 충주센터, 제천센터, 음성센터, 옥천센터) 등에서 소상공인 육성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업무 등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음.

○ 2022년 현재 충청북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시책은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과 연계하여 자금지원, 컨설팅 교육, 판로개척, 기술보급 및 시설구축, 공동지원, 재기지원, 공제, 특화, 인증 영역에 걸쳐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 지원하고 있음.

- 자금지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 컨설팅 :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무료법률 구조 지원
- 교육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소상공인 경영교육, 창업·경영개선 아카데미
- 판로개척 : 온·오프라인 판로개척지원, 소공인 쇼케이데이, O2O플랫폼 입점지원
- 기술보급·시설구축 : 생활혁신형 기술개발, 스마트공방 및 상점 기술보급, 간편결제 시스템, 클린제조환경,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 주차환경개선, 노후전선 정비 등
- 공동지원 :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협업 활성화, 지역우수상품 전시회
- 재기지원 : 희망리턴패키지,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공제 : 전통시장 화재공제, 소기업·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 특화 : 특화시장 육성, 이익공유형 사업화, 복합청년몰 조성 및 활성 지원, 중소슈퍼 지원,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
- 인증 :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 수출두드림기업 지정, K-tag(공동브랜드)

2. 선진국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동향 검토

○ 소상공인 지원정책 사례검토는 미국, 일본, 영국 등의 주요 선진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2)]

1) 미국

○ 미국은 우리나라 소상공인과 유사한 개념으로 규모가 가장 작은 기업 그룹인 마이코로 엔터프라이(microenterprise) 또는 마이크로비즈니스(microbusiness)가 통용됨.

- 미국 중소기업청(SBA) 소기업(small business)은 소유주 포함해 5명 미만의 경우가 그 범주에 해당됨.

○ 미국의 소기업 지원정책은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정부기관들과 다수의 민관기관들에 의해 다음과 같은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 중소기업청 보증 대출 : 중소기업청은 직접 대출을 제공하지 않지만 협력기관의 대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보증하여 대출기관의 위험을 경감하고 중소기업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급여보호프로그램 :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직원 임금이나 임대료 등의 지불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이 목적이며, 차후 대출금 상환면제가 가능해 지원금의 성격을 갖고 있음.
- 경제적 재난 대출 프로그램 : 중소기업청이 경제적 재난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일시적으로 손실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비영리단체 등에 저금리, 장기 상환, 고정금리 대출을 지원해 정상적 운영을 도모해 주고 있음.
- 공연문화 운영자 지원금 :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공연문화 단체 등에 긴급 지원을 차등 제공하고 지원금은 임금, 임대료, 전기사용료, 예정된 부채상환, 용역대금, 행정비용, 세금, 보험료 광고료 등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음.

2) 소상공인의 지원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16.12), 소상공인 지원정책 및 동향 분석 및 국토연구원(2021.9), 코로나19 시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방향 등의 자료를 참조할 수 있음.

- 음식점 활성화 기금 : 식음료를 제공하는 사업체에 음식점 활성화 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을 겪는 사업체를 지원하여 2023년까지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도록 지원함. 2021년 3월에 "미국 구제 계획법"의 제정으로 286억달러 규모의 음식점 활성화 기금 예산이 책정되어 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
- 중소기업청 부채 경감 재정지원 :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기존 중소기업청 보증 대출자에게 초기 부채 경감 재정지원으로 6개월분에 한정해 원리금 상환액을 지원함.

2) 영국

○ 영국은 연간 매출액, 총산규모별, 고용인원별로 구분하는데, 고용인원 250명 미만을 중기업, 50명 미만을 소기업, 10명 미만을 영세기업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 영국은 소상공인 지원은 코로나19와 무관한 일반적인 지원제도와 코로나19 피해 지원 제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일반적인 소상공인 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 창업지원 대출 : 정부가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보증하는 무담보 대출을 25,000파운드 한도에서 5년 내 상환, 6% 고정금리, 지원 수수료, 조기 상환 수수료 없이 지원해 주고 있음.
- 창업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 : 새로 창업하는 회사의 지분을 구매하는 투자자에게 세금 감면의 혜택을 제공하여 창업하는 회사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정책임.
- 창업보조금 지원 프로그램 : 18세 이상의 사람들 가운데 생계급여, 구직수당 등을 받는 사람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경우, 멘토링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영국 혁신 프로그램 : 혁신적인 영국 기업이 새로운 기술의 잠재력을 실현토록 하고, 아이디어 발전과 상업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제공함.
- 킥스타트 신규 고용촉진 프로그램 : 청년(16~24세)을 위한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재정을 지원함.

○ 영국은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 자영업자소득보조금 지원, 종업원 임금 지원, 세금납부기간 연장, 금융지원 등의 지원대책을 시행함.

- 자영업자 소득 지원 프로그램 : 2020~2021년 동안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대책으로 지영업자 혹은 동업자로서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연간 사업이익 5만파운드 이하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총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자영업자의 소득을 지원함.
- 일자리 보전 프로그램 : 고용자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임금을 줄 수 없을 경우, 종업원을 일시 휴직시키고 평상시 임금의 일정부분을 종업원에게 지급하도록 예산 기준 범위 내에서 지원함.
- 재난복구 대출 프로그램 :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중단으로부터 회복하는데 필요한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정부가 80%의 금융대출을 보증하여 지원함.

3) 일본

○ 일본의 경우 상시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소규모기업자”를 정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소상공인과 유사하나 그 범위에 있어서는 차이가 존재해 한국보다 범위가 넓으며, 다양한 용어들이 혼재되어 사용됨.

- 중소기업기본법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기타업종 20인 이하, 도매업, 서비스업, 소매업은 5인 이하가 소규모기업에 해당함.
- 소규모기업진흥기본법 : 소규모기업자와 소기업자로 세분하고 있으며, 소규모기업자는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기타업종 20인 이하 소기업자는 5인 이하, 도매업, 서비스업, 소매업은 5인 이하가 소기업자에 해당함.

○ 일본의 일반적인 소상공인 지원은 소규모기업진흥기본법에 근거하여 소규모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상공회와 상공회의소 등을 통한 지원과 소규모기업 공제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음.

- 소규모사업자 지원사업은 소규모사업자 지원 패키지 사업, 경영개선자금 융자제도, 경영발달 지원 융자제도, 창업·제2창업 촉진 보조금 등의 지원과 상점가의 지원을 위한 상가·마치니카 인바운드 촉진 지원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음.

○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대상의 지원정책들은 다음과 같이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음.

- 일본정책금융공고 및 민간금융기관(상공조합중앙금고)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 : 코비드 19 감염병특별대부와 코비드19 대책 자본성열후론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영업이 악화된 중소기업 및 소규모기업자에 대해 자금조달을 지원함.
- 지속화 급부금 : 코로나19로 영업에 영향을 입은 사업자들의 사업 계속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주(기업 및 중소기업, 소규모사업자, 프리랜서 포함) 등에 대해 중소법인은 200만엔 한도, 개인사업자는 100만엔 상한의 현금을 지급함.
- 임대료지원 급부금 : 코로나19를 계기로 2020년 5월 긴급사태선언 연장으로 매출감소에 직면한 사업자의 사업지원을 위해 지대와 임대료 부담경감을 목적으로 법인은 최대 600만엔, 개인사업주는 최대 300만엔을 현금으로 일괄 지급함.
- 소규모사업자 경영개선자금 확충 : 코로나19 영향을 입은 소규모사업자들의 지원을 위해 일본정책금융공고에 의한 융자 대부한도의 확충과 금리 인하를 통해 무담보, 무보증 저리융자 등을 지원함.
- 소규모기업 공제제도의 특례긴급경영안정대부 : 코로나19에 따른 매출감소 등의 영향을 입은 소규모기업공제 계약자에 대해 보증금 범위 내에서 소정비율에 따라 대부 요건의 완화를 시행함.
- 투자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 경영환경 정비 지원과 Go To 상점가 사업 등의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과 상점가의 재인식 계기와 대응을 지원함.
- 고용조정조성금 특례 조치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변동, 산업구조변화 등의 경제적 사유로 불가피하게 사업 활동 축소를 경험한 사업주가 일시적으로 휴업 교육훈련 및 파견 등을 통해 노동자의 고용유지를 계획하는 경우 휴업수당, 임금 등의 일부 조성 지원하고자 실시함.

3. 소상공인 활력 강화를 위한 정책시사점 도출

1) 소상공인 현황 및 경영실태 분석에 따른 시사점

○ 대폭 감소하고 있는 소상공인사업체 종사자의 지속적인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종사자 보호지원 대책의 강화가 필요함.

- 코로나19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사업체수는 코로나19 영향 이전보다 되려 증가하고 있으나 소상공인 종사자수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은 한 전체적으로 소상공인사업체 영세규모화 촉진과 실업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제적 악순환이 예상됨.
- 이에 기존 소상공인사업체 종사자들의 지속적인 고용 보호과 일자리 유지를 지속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소상공인 일자리 보호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소상공인사업체들의 영업비용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경영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대책의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함.

-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영환경 여건이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매출액은 증가하였지만 사업체 경영에 따른 영업비용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악화가 동시에 초래되고 있음.
- 이에 소상공인사업체의 영업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상공인공동체 기반의 공동물류 창고 등의 인프라 기반지원과 공동구매 지원, 공공택배시스템 등의 거래비용 지원을 지원 대책의 적극적 강구가 요구됨.

○ 소상공인사업체들의 영업이익 제고를 위한 소상공인 사업영역의 새로운 가치 창출 제고와 고부가가치화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혁신지원 대책의 전략적 모색이 필요함.

- 코로나19 발생 이후 영업부진으로 대폭 감소하고 있는 소상공인 영업이익의 상쇄와 새로운 영업이익 창출 제고를 위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전략의 강구가 요구됨.
- 이에 소상공인들의 영업이익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전략 아이템이나 새로운 영업이익 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는 지원시스템의 고민이 요구됨.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현실적인 지역경제 침체와 활력저하를 극복하고 신규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생활경제 기반 확대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소상공인 창업의 활성화 촉진 대책의 강화가 필요함.

-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코로나19 영향과는 관계없이 창업 동기가 자신만의 사업을 경영하고 싶어서라는 이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기업가정신을 살려 나갈 수 있는 창업지원 대책의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됨.
- 이에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독립적인 소상공인 창업의 동기와 의욕을 고려해 신산업 중심의 혁신적인 소상공인 창업의 활성화와 촉진을 위한 전략적 프로그램이나 신중년 및 청년계층의 창업지원 확대를 위한 대책이 요구됨.

○ 창업 준비기간의 단축과 창업비용 및 자기부담금의 감소에 따른 무분별한 부실 창업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 준비와 단계적 창업지원을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코로나19 이전보다 짧아지고 있는 창업 기간과 창업비용 및 부담금의 감소는 자칫 준비 없는 창업 실패나 부실 창업으로 이어져 오히려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음.
- 이에 성공적인 소상공인 창업 준비와 책임 있는 기업가정신이 발휘되어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체계적인 창업생태계를 지원하는 창업지원 시스템의 강구가 요구됨.

○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창업과 사업경영 애로 요인의 해소와 극복을 지원해 나가기 위한 과감하고 혁신적인 소상공 창업지원 및 경영컨설팅 프로그램 등의 전략적인 대책 강구가 요구됨.

- 소상공인들이 느끼고 있는 창업 및 사업경영에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경쟁 심화와 자금조달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
- 이에 특정 업종에 편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창업의 다원화 지원과 환경의 조성, 및 사업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지원해 나갈 수 있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공 보증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접목의 모색이 요구됨.

○ 소상공인 창업자들의 애로 요인이자 희망하는 중점 추진대책의 수요반영과 욕구 해

결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의 적극적인 모색과 강구가 필요함.

-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나타나고 있는 창업 애로와 사업경영 애로 요인으로 손꼽히는 경쟁심화와 자금조달의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의 강구가 요구됨.
- 이에 이와 같은 애로 요인의 해소와 지원을 위한 창업컨설팅 공공지원 정책의 강화와 차별적이고 다원화된 자금지원프로그램의 대책 마련 필요성이 있음
- 또한 단위 사업적 단순 지원 프로그램을 넘어 소상공인의 애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파악하여 지역 및 개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는 종합솔루션 지원의 소상공 혁신정책을 마련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2) 소상공인 지원제도와 선진사례 검토에 따른 시사점

○ 소상공인들의 일상적 사업 활동에 기반한 맞춤형의 지원법률 기반 및 정책지원 제도 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국내외적으로 현재에도 많은 지원제도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으나 정작 일선의 소상공인사업체나 소상공인들은 생활업종에 집중되어 교육 참여와 정보 숙지가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소상공인들이 사업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적인 기반과 정책지원 정보를 손쉽게 파악하고 알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 사업종료 이후 경영 사업 현장 중심으로 찾아가는 소상공인 이동 교육 활성화 대책 마련이 요구됨.

○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상권 등 사업입지 여건에 따라 달리 시행되고 있는 지원제도와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한 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컨설팅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들도 지역 생활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을 보호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조례 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대부분 최근에 마련되었고, 표준조례에 기반하여 지역경제와 지역 소상공인 사업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이에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특성과 사업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고 반영하여 지역 맞춤형의 조례개정으로 지원 대책의 실효성 제고와 차별화된 맞춤형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개정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함.

○ 선진국들과 같은 소상공인 지원 관련 재원의 확대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인프라 확충, 직접적인 현금지원의 한계를 벗어나 차별적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간접지원과 공공 및 신용보증 대책이 요구됨.

- 선진국들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직접적인 현금지원보다는 간접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공공기관 보증, 기술력 보증 등의 신용보증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우리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지원모델의 개발과 정책전략 프로그램의 마련이 요구됨.

제Ⅳ장 충북지역 소상공인 활성화 전략 과제

1. 충북지역 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한 전략

■ 조례에 근거한 실태조사와 종합지원계획 수립의 조속한 시행

○ 충청북도는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최근(`22.6.30)에야 제정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소상공인위원회 설치 운영 및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고, 매년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전국적인 소상공인 실태조사가 시행되고 있으나 지역 특성과 정책 수요의 파악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별도의 충북지역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실상 진단과 더불어 지역맞춤형 지원정책 수립과 시행이 요구됨.

○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중요한 기반 축이 되고 서민경제를 떠받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 측면이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충북 차원의 소상공인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현행 조례상에는 매년 수립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실행계획의 성격에 그치고 있고, 실태조사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정례화하도록 개정이 요구됨.

■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의 개정 및 지원조직의 기능 확충

○ 충북은 최근 민선8기 들어 조직개편을 통해 소상공인 전담부서인 소상공인 정책과를 신설하고, 기존 생활경제팀을 소상공인지원팀과 시장활성화팀으로 분리하여 지역경제 뿌리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전통시장에 활력을 도모해 나갈 계획임.

- 그러나 최근 제정된 지원 조례는 종합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항목이 아예 없고, 소상공인 실태조사도 임의적 규정 형태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명확한 실태파악과 정보축적이 가능토록 주기적, 정례적 조사를 명문화하는 개정이 요구됨.

- 이를 기반으로 지역맞춤형 소상공인 종합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소상공인 관련 정책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간전담 조직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둘 수 있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효적 뒷받침이 가능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 행정의 추진을 위해서는 임의적 규정이 아니라 의무적 규정으로 강화하여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서 낙후된 충북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적인 혁신을 지원해 지역특화형의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지원을 추진해 나가도록 모색해 나가는 것이 요구됨.

2. 충북지역 소상공인 창업 활성화 전략

■ 소상공인 창업지원 종합컨설팅 지원 강화

○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 충북지역의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애로사항은 자금조달, 입지선정, 업종선택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여 나갈 수 있도록 소상공인 창업컨설팅 지원과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창업상담창구를 마련하여 순회형 소상공인 창업상담소 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 창업지원을 위한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상권분석, 입지분석, 경쟁분석, 수익분석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을

위한 자금지원 및 판로, 투자 등의 후속 연계지원 등과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통해 교육, 체험, 사업화 지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런 정책 대부분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소도시나 시·군 단위에선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정보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적극적인 창업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차원에서 순회형 소상공 창업상담소 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특화형 소상공인 창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맞춤형 소상공인 업종분포지도 및 입지분석 정보서비스 제공

○ 충북지역 소상공인들은 창업에 있어서 자금조달 외에 입지선정과 업종선택에 애로를 크게 느끼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도내 지역별로 입지분석과 업종분포 지도를 매년 발간하여 입지와 업종 선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토록 함.

- 이는 최근 소상공진흥공단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권정보시스템과 연동되도록 하되, 국세청 및 지방세무서와 협력하여 신규 창업 및 폐업 기초자료의 DB 구축으로 지역 및 업종별 소상공인 입지변화 트렌드와 과밀화 정도 등에 대한 창업 정보를 제공함.

○ 충북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사업체를 운영함에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은 동일 업종의 경쟁 심화와 상권쇠퇴에 따른 사업전환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기존에 충북에서 사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의 적극적인 해결과 함께 상권쇠퇴에 따른 업종전환 등을 유도해 나가기 위한 차원에서도 지역별 소상공인 업종과 입지변화 분석정보의 제공이 매우 긴요하게 정책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생활밀착형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사전교육 컨설팅 강화

○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들의 창업 준비기간이 길어지고 창업비용은 감소하고 있는 만큼 생활밀착형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사전 창업 상담과 준비교육 등을 강화하여 무차별 창업으로 인한 초기 실패를 방지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

- 이에 창업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생활밀착형 업종을 중심으로 지역단위 창업 상담과 창업 교육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특화형 소상공인 창업이 이루어지도록 컨설팅 지원 사업과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는 것이 요구됨

■ 청년 소상공인 창업 아이템 공모 발표 및 투자설명회 개최

○ 충북지역에 기반을 두고 정착하여 소상공인 창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창업 아이템 공모전을 추진하여 발표회를 개최하고, 창업의 가능성이 높고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아이템에 대해서는 투자금융사 및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함.

- 이는 청년 소상공인들의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나아가 창업 시에 애로를 겪고 있는 필요한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전략 방안이 될 수 있음.
- 보다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면 정책적으로 가칭)충북청년창업지원 펀드를 마련하고 청년들의 창업아이템을 사업화까지 연계할 수 있는 정책지원 프로그램을 강구해 나가도록 지원하는 전략적 추진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충북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전략

■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구축 및 운영 강화

○ 정부는 소상공인이 집적하고 있는 지역에 공동생산 및 연구장비, 공용장비 및 전용교육장, 공동 전시판매장, 공동창고 시설 등의 인프라 시설을 지원[3]하고 있으나 충북은 이러한 지원정책을 제대로 활용하고 유치한 실적이 매우 빈약한 실정임.

- 이는 지역 소상공인 단체나 협의회 등은 대부분 지자체 지원에만 의존해 사업계획수립 경험이 없고, 소극적 대응으로 정책사업을 유치하지 못한 결과이므로 소공인 공동인프라 구축과 운영을 위한 보다 능동적, 전략적 대응이 요구됨.
- 이에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및 유관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 소상공인 집적지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함.

3)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해 공동기반시설 구축에 1곳당 15억원 내외를 지원하고 있음.

○ 소상공인을 위한 공동인프라 구축은 해당 지역마다 필요로 하는 기반이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당 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시급한 공동인프라 기반을 우선 확충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인프라를 관리 운영하기 위한 운영 방침과 방법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이는 공동인프라 구축 이후에 시설 운영비나 관리 부실로 인한 책임소재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자칫 방치되어 무용지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사업 유치 못지않게 관리 운영을 위한 대책 등을 철저하게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 강화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온라인 구매 수요가 급증하면서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비대면 소비추세에 맞춰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사업도 더욱 강화되면서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충북지역 소상공인들의 판로지원을 지원 강화를 위해 가칭)충북 소상공 명품 디지털 마켓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해 운영하는 전략적 방안 모색이 필요함.

- 특히, 가칭)충북 소상공 명품 디지털 마켓의 운영은 상시적 온라인 운영은 물론이고 이와 더불어 계절별, 지역별, 제품별로 차별화하면서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하는 전략적 기획 홍보판매전을 전개해 충북의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 제품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지만 충북지역 각 시·군별 혹은 시장별로 독특하고 차별화된 소상공인의 유명 명품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들 충북의 시장명품을 엄선하여 이를 온라인을 통해 집중적으로 판매해 나갈 수 있도록 충북 특설시장 플랫폼 구축사업을 지원함.

- 이를 위해 가칭)충북 특설시장명품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군별로 할인 판매토록 운영함으로써 소상공인 시장명품의 마케팅 판로 확대 지원은 물론 값싸고 품질이 좋은 시장명품을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충북 소상공인 복합청년몰 조성

○ 정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들이 많은 전통시장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통시장 내의 빈 공간이나 점포를 활용하여 청년상인의 청년창업 점포와 문화체험, 지역민들의 소통이 가능한 복합몰(mall) 조성[4]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이에 시대적 트렌드를 반영해 디지털 환경이 갖추어진 형태의 가칭)충북특화형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을 계획해 디지털 온라인 환경에 적합하고 청년들이 선호하여 활동할 수 있는 청년지원 소공인 인프라 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함

4. 충북지역 장수 소상공인 발굴 및 육성전략

■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충북 장수 소상공인명문가 육성지원 강화

○ 지역 소상공인은 서민경제의 근간이자 지역경제의 주요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명소 혹은 명물로 전통적 자긍심을 심어주고 사람들을 유인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다산다사(多産多死)의 특성을 보여 장수 소상공인의 수는 매우 적은 것이 현실이므로 장수 소상공인의 적극 발굴 육성과 지원이 요구됨.

- 2018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할 때 30년 이상의 장수 소상공인은 11만개로 전체 대비 3.5%이며, 50년 이상은 0.1%(2,504개), 100년 이상은 27개(0.001%)에 불과하고, 충북에는 30년 미만이 96.9%를 차지하고, 30년 이상은 3,165개로 3.0%이고, 50년 이상은 0.1%, 100년 이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충북의 장수 소상공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을 지원해 가업 승계형 지역 전통 명소명인형(名所名人型) 가게와 상공인이 자긍심을 갖고 계속 대를 이어가는 충북명문상공가(忠北名門商工家)를 육성하고 이들이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30년 이상 명맥을 유지하면서 사랑

4) 이 사업은 몰(mall) 당 40억원 이내를 지원하고, 몰 당 활성화 사업은 5억원, 확장사업은 10억원 이내를 지원하고,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를 기본으로 하며,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음.

을 받아온 점포 중에 우수성과 성장가능성을 평가해 `백년가게`로 인증하고, 15년 이상 한 분야에서 숙련된 기술과 장인정신으로 오랫동안 사업장을 운영해 온 소공인 점포를 `백년소공인`으로 지정해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2022년 10월 현재 충북지역에는 백년가게 82개(전국 1,316개 대비 6.2%), 백년소공인 29개(전국 831개 대비 3.5%)가 지정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에 향후 충북에 보다 더 많은 소상공인 점포들과 소상공인들이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으로 정부 지정받고 지원을 이끌어 내어 충북의 소상공명문가를 발굴 육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역사적 뿌리와 장인정신이 살아있는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의 자부심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차원의 전략적인 홍보 강화를 방안을 강구하여 지원토록 함.

- 이에 정부가 지정한 충북지역의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점포와 소공인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홍보 CI 제작지원과 함께 홍보용 스토리텔링 북이나 점포의 뿌리와 역사를 알 수 있는 가칭)충북명문상공가 시리즈 북 같은 것을 발간해 대내외 홍보용 책자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임.

■ 올해 충북 최고의 명소점포 및 소상공 명인선발 콘테스트 추진

○ 충북 도내 소상공인 점포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충북의 대내외적 위상을 드높인 명소점포와 소상공 명인을 선발해 자긍심과 자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사기진작과 경영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함

- 이에 도내 소상공 점포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올해 충북 최고의 명소점포 및 소상공 명인 베스트5(Best 5)를 선정해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선정된 점포와 명인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요금 감면 및 선진지 견학과 포상금 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전략적 방안 등을 모색해 나가도록 함.

■ 충북 장수 소상공인 생산제품 및 지역특화 명작 마트 개설지원

○ 대내외적 경쟁력을 가진 충북 장수 소상공 제품 및 지역 소상공인 특화 명작생산품의 시장개척과 판로 확대를 위한 채널을 확충하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주요 도시지역

등에 충북 소공인 명작 마트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함

- 현재 충청북도에서는 농림식품부 및 충북도의 예산을 매칭하여 충북 6차산업 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강화와 지원을 위하여 안테나숍 형태의 마켓 운영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음.
- 이에 소상공인 정책지원 차원에서도 장수 소상공인 상품과 충북지역 소상공인 특화 명작생산품 등을 중심으로 전문적으로 전시 판매할 수 있도록 가칭)충북 소상공 특화 명작 마트를 주요 도시에 개설하여 운영하거나 백화점 및 아울렛 등에 입점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 전략을 마련해 나가도록 함.

○ 또한 향후 정부는 2030년까지 1마을 1마을기업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어서 소상공인 관련 제품의 판로경쟁과 시장개척이 더욱 절실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마을 기업 등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생산제품을 이와 같은 충북 명작 마트와 연계하여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임.

- 중장기적으로는 향후 시장구매 소비 형태의 변화추세 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디지털 마케팅 전환을 모색해 온라인상거래 형태의 사이버 충북 명작 마트 플랫폼을 함께 구축해 온-오프라인 형태의 전천후 판로지원 채널 기반을 동시에 강화하고 확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임.

제V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 본 연구의 배경은 서민들의 일상적 생활경제 버팀목 역할을 하는 지역 소상공인의 역할에 대한 인식변화와 사회경제적 중요성과 경영혁신의 필요성 및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를 기본바탕으로 하고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 일상 시대 소상공인의 활성화 전략 모색, 사회·경제적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소상공인 대응 방안 강구, 소상공인을 통한 저성장 시대의 극복과 지역 일자리 창출 등에 두고 있음.

○ 소상공인 현황과 경영변화 분석 결과,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사업체수는 전국과 충북 모두 증가하였지만 종사자수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사업체수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감소(전국 -0.2%, 충북 -1.3%)
- 종사자수는 정보통신업분야만 증가하고 나머지 산업영역은 모두 감소

○ 소상공인의 경영실태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총매출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업비용은 전산업에서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큰 감소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 총매출액 : 전국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은 감소하고, 충북은 교육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분야만

감소하고 나머지 분야는 모두 증가(전국 1.6%, 충북 4.3% 증가)

- 영업비용 : 전산업 분야에서 모두 증가(전국 7.8%, 충북 11.6% 증가)
- 영업이익 : 전국은 정보통신업(68.4%)과 건설업(18.7%)만 증가하고 나머지 분야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충북은 건설업(29.2%)만 증가하고 나머지 분야 산업영역은 모두 감소

○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애로 요인의 분석에서 창업동기는 전국과 충북 모두 `자신만의 사업을 경영하고 싶어서`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창업 준비기간은 전국과 충북 모두 평균 9.6개월로 감소하였고, 창업비용과 본인 부담금액도 모두 감소함.

- 창업의 어려움은 전국과 충북 모두 자금조달, 입지선정, 업종선택
- 사업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은 경쟁심화, 상권쇠퇴, 원재료비, 방역조치 등
- 희망 중점정책은 전국과 충북 모두 자금지원, 세제지원, 판로지원 등을 희망
- 재난 대응에 필요한 정책은 재난지원금 등 보조금 지원을 가장 선호

○ 정부 차원의 소상공인 관련 법률 제도는 소상공인 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등이 정책지원추진 기반이 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위 관련 법률을 기반으로 소상공인 관련 자치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충북에서도 도와 11개 기초자치단체가 모두 소상공인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해 소상공인들을 지원정책을 추진
- 다만 지자체의 자치조례는 표준조례에 기반해 지역경제 및 소상공인의 특성과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고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선진국들의 경우, 소상공인 개념은 우리나라와 약간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원정책은 우리나라와 달리 직접적인 현금지원보다는 간접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지원 전략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들은 공공기관 보증, 기술력 보증 등 신용보증에 중점을 두고 간접적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 충북지역의 소상공인 발전을 위한 활성화 전략 과제의 제시를 위해 소상공인 활력 제고 전략, 창업 활성화 전략, 인프라 확충 전략, 장수 소상공인 발굴 및 육성 방안 전략을 모색하여 영역별로 다음과 같이 제시함.

- 활력 제고 전략 : 자치조례에 근거한 실태조사와 종합지원계획 수립의 조속한 시행,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의 개정 및 지원조직의 기능 확충 등
- 창업 활성화 전략 : 소상공인 창업지원 종합컨설팅 지원 강화, 지역맞춤형 소상공인 업종분포지도 및 입지분석 정보비스 제공, 생활밀착형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사전교육 컨설팅 강화, 청년 소상공인 창업 아이템 공모 발표 및 투자설명회 개최 등
- 인프라 확충 전략 :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구축 및 운영 강화(수요기반 공동인프라 확충 및 관리 운영),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 강화((가칭) 충북 소상공 명품 디지털 마켓 온라인 쇼핑물, (가칭)충북 특설시장명품 플랫폼 구축), 충북 소상공인 복합청년몰 조성 등
- 장수 소상공인 발굴 및 육성 전략 :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충북 장수 소상공인 명문가 육성 지원 강화(명소·명인형 가게 및 상공인 발굴 육성,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지정), 올해의 충북 최고 명소점포 및 소상공 명인선발 콘테스트 추진(명소점포·소상공명인 Best 5 선정), 충북 장수 소상공인 생산제품 및 지역특화 명작 마트 개설 지원 등

2. 결론

○ 대내외적인 사회·경제 환경구조의 급속한 변화와 더불어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코로나19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펜데믹이 선언되고, 전염병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직접적인 대면서비스업 중심의 소상공인들이 많은 영향을 받으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현실적으로 완전한 엔데믹 선언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코로나 일상으로 회복되고 있으나 사회·경제·문화 환경은 과거로의 완전한 회복이나 회귀는 더 이상 어렵거

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제 소상공인들도 이전과는 다른 전략적 경영변화와 대응책의 모색이 절실한 상황임.

○ 특히, 지역사회경제의 주요한 근간이자 서민들의 생활경제 기반으로서 일상적 사회적 순환 경제생태계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 대상의 공공정책과 자발적 대응 전략 및 경영 전환이 현실적 사회적 과제로 부각 되고 있음.

○ 이에 지역 생활경제 및 산업의 근간이자 국가 경제의 모세혈관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혁신과 선진적 발전은 지역 산업경제 기반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국가 경제의 기초적 체력을 튼튼하게 유지해 나감에 있어서 절대 필요한 중요한 미래과제라고 할 수 있음.

○ 그러한 차원에서 공공정책도 이전과 같은 무조건적 단순한 보호 중심의 전통적 방식의 소상공인 정책에서 벗어나 작지만 강한 경쟁력을 가진 소상공인 육성과 미래 지속 가능한 성장발전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소상공인 주체들 스스로도 사회경제 환경변화에 수동적인 자세를 보이기보다 능동적인 마인드(mind)로 전향적 자세 변화를 통해 스스로 자발적인 경영혁신과 현실적인 위기 극복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자구적 대응과 변화 노력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이와 더불어 충북지역에 적합하고 나름대로 지역적으로 특화된 소상공인의 성장육성 전략과 기반인프라 확충을 도모해 나갈 수 있는 혁신적 발전전략과 제도적 기반의 정비를 지속해서 모색해 나가야 함.

○ 그리고 대내외적으로도 미래지향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소공인들의 의식개선과 함께 지역의 혁신역량 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창의적 혁신전략을 계속 추구하고 도모해 나가려는 노력이 전개되도록 해야 할 것임.

참고문헌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20), 소상공인의 코로나 19 위기극복을 위한 디지털 전환, KB지식 비타민.

○ 강민정·이재희(2022.4) 소상공인 금융실태 및 시사점, 소상공인 금융시장동향 리포트.

○ 김태영 외(2021.11), 경기도 소상공인 중장기 동향분석 및 정책방향, 경기연구원.

○ 남윤명·정삼철·우장명·윤영한(2018), 소상공인 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충북연구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정책 해외 사례.

○ 대한민국정부(2021.8), 2021년도 소상공인 연차보고서.

○ 박주완·배진성·윤혁준(2019),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별 특성 연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상공인시장진흥공단(2021.12), 2022년 소상공인 시장 전망과 Issu5, 소상공인브리프.

○ 상공인시장진흥공단(2021.12.27.), 전통시장 상점가 점포경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16.12), 소상공인 지원정책 및 동향 분석.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21.01),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행조사.

○ 소상공인연합회(2020.11),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 신기동 외(2017),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 오동윤(2018.5), 지역경제활성화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역할, 토론회 자료.

○ 이미순·남효진(2020.12), 장수 소상공인의 현황 및 발전방향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정책연구 20-36.

○ 이연수·박주완(2022), 2021 소상공인 금융실태조사 보고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이재희(2022.4), 포스트 코로나 소상공인 경영개선 동향 조사, 소상공인 브리프.

○ 장은정(2022.2), 소상공인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소상공인 브리프.

○ 정은애(2019.3.25.), 상권주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자영업 정책방향, 중소기업포커스.

○ 정지현(2022.1),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활성화, 소상공인 브리프.

○ 조봉현(2019.5), 디지털 환경변화와 소상공인 대응전략, 소상공인정책위원회.

○ 중소기업중앙회(2019.5), 소상공인 경영애로 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 결과보고서.

○ 중소기업중앙회(2020.12),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일과 삶의 변화조사 보고서.

○ 중소벤처기업부 · 통계청(2020.12.), 2019년기준 소상공인실태조사.

○ 충청지방통계청(2021.7.29.), 통계로 보는 충청지역 소상공인 변화.

○ 통계청(2021.12.28), 2020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잠정) 보도자료.

○ 통계청(2021.12.28), 2020년기준 경제총조사 결과(잠정) 보도자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0),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시책 개발.

○ 홍석일·지민웅·신종원·한창용(2016.12), 소상공인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e-KIET 산업경제정보.

○ 홍순창(2016), 소상공인 경제활동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 중소벤처기업부((http://www.mss.go.kr)

○ 통계청(http://Kostat.go.kr)

○ 부록 :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시행 2022. 6. 30.] [충청북도조례 제4772호, 2022. 6. 30. 일부개정]

충청북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6.30.〉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창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 “소상공인 관련단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7조제1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2022.6.30.〉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상공인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마다 수립·시행하는 충청북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같은 법 제7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6.30.]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6.30.〉]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6.30.〉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6.30.〉
[제5조에서 이동 〈2022.6.30.〉]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1.5.18.〉

1. 법 제8조에 따른 소상공인 창업 지원
2. 법 제9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3. 법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4. 「소상공인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5. 「유통산업발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건립한 전문상가단지의 경영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6.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실시하는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에서 이동 〈2022.6.30.〉]

제8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6.30.〉

② 도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6.30.〉
[제7조에서 이동 〈2022.6.30.〉]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소상공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
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2.6.30.]

[종전 제9조는 제17조로 이동 〈2022.6.30.〉]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상공인 지원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소상공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6.30.]

[종전 제10조는 제18조로 이동 〈2022.6.30.〉]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6.30.]

제12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2.6.30.]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과 관계된 실·국·원 및 본부장(담당관, 과장을 포함한다)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2.6.30.]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상공인지원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2.6.30.]

제15조(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 5. 31.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2.6.30.]

제16조(소상공인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제7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2.6.30.〉
② 도지사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18.]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1.5.18.〉]
[제8조에서 이동 〈2022.6.30.〉]

제17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7조 및 제16조의 사무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도의 출자출연기관 또는 민간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5.18., 2022.6.30.〉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5.18.〉

[제8조에서 이동 〈2021.5.18.〉]

[제9조에서 이동 〈2022.6.30.〉]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1.5.18.〉]

[제10조에서 이동 〈2022.6.30.〉]

부칙 〈제4249호, 2019.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5.18. 조례 제4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6. 30. 조례 제4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2 기본과제

충북지역 소상공인 경영변화와 발전과제

발행인 | 황 인 성
발행일 | 2022년 12월
발행처 | 충북연구원
전화 043-220-1107 팩스 043-220-1199
28517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문화동 15)
ISBN | 978-89-6455-610-8 93320

* 본 출판물의 판권은 충북연구원에 속합니다.
* 본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2022년도 기본과제 본보고서의 전문은
충북연구원 홈페이지(www.cri.re.kr)를 참고바랍니다.